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 비교: 시계열 데이터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조용수*

- I. 들어가며
- II. 연구 방법론 및 연구 모형 설정
- III.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
- IV. 중국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양상 비교
- V. 나가며: 최종 가설 검증 결과 도출 및 함의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갈등에서 중국의 주요 해양안보 전략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한 “회색지대전략”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두 가지 가설들을 세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사’되어 왔고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각 분쟁들의 양상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혀냈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들은 첫 째, “중국이 활용하는 해양 회색지대전략은 주요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기 다른 수행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을 크게 차례대로 1) 분쟁 추이와 전략 수행의 빈도, 2) 전략의 유형과 강도, 3) 전략 수행의 행위자, 4) 상대국의 대응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양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06월에 이르는 약 10년 가량의 데이터(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과 분쟁 동향 등)를 가공하고, 직접 연구 모형을 설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e-mail: nepadsoul@nate.com

계해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와 조작적 정의를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포괄적인 메커니즘들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양상도 성공적으로 비교해 최종적으로 모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검증된 결과를 재차 정리하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동아시아 역내의 안보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수행되는 구조를 밝히고, 이것과 해양 분쟁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방법론을 이용해 규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중국, 해양안보, 회색지대전략, 남중국해/동중국해 분쟁, 시계열 데이터 비교분석

1. 들어가며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주지하듯,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미국의 해양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해양강대국(海洋強大國) 달성을 위해 국가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¹⁾

중국이 덩샤오핑의 근대화 노선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적 목표인 ‘해양력 강화’는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고,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 시진핑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더욱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그는 집권 1기부터 중국 해군의 강화와 같은 ‘군사안보적 우위 실현’을 통한 대양으로의 진출, 해양에서의 경제적 권익 확보, 해상교통로와 해양영토의 장악을 통한 관할권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제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하고 해양에서의 부상이 곧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심적 화두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중국의 이 같은 해양강대국 달성을 위한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역내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전략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점진적인

1)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해양안보환경의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2) 윤지원. “중국 해군의 급부상: 해양패권을 꿈꾸는 잠룡”. 『국방과 기술』, 제459권, 2017.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패권 싸움은 자칫 해양에서의 대규모 무력 충돌 및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담지한 채 주변국들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시급한 안보 이슈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새롭게 구사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실제 분석”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과 달리 중국이 위의 분쟁 지역에 대해 전통적인 외교적 수단, 안보정책, 혹은 직접적인 군사력을 투사하지 않고 그 양상과 범위의 측면에서 상당히 비전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행보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회색지대전략(grey zone strategy)’이라는 용어는 2010년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최초로 등장했고,³⁾ 이후 학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색지대전략의 안보적 위협에 관한 분석이나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일반론적인 전망과는 별개로, 분쟁 지역 별 회색지대전략의 유형, 구조, 경향, 양상, 사후 대응 방식, 혹은 심지어 회색지대전략의 역사성 자체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정작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설명이 부재하다면, 중국이 해양 분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회색지대전략의 변화 추이에 대한 예측은 물론 그 전략이 불러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마저 점차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역학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일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상호의존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정치적, 안보적 의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중국과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들에 있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의 가능성은 항시 열려있다.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을 저지하고자 미국이 주도하는 관여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분쟁 참여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억지할 전방위적인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거나 자칫 국지전과 비슷한 규모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불가분한 관계를 오랜 역사 속에서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이 안보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술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실재적 내용과 구조에 천착한 연

3)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구는 향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매우 중요한 시의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으며, 이에 미국과의 충돌도 점차 격화 내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런 연유로 해당 분쟁 지역들이 모두 이미 미중 간 패권경쟁의 장이자, 현상 유지 세력과 현상타파 세력의 대립 구도로 점철된 미래의 잠재적 화약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이 국내에서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활용 동인, 구조, 경향성, 그로 인한 분쟁 양상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리라 믿는다. 이와 더불어, 본고가 한국의 적실한 해양전략을 통한 안보이익 달성과 대양(大洋)에서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회색지대전략의 개념과 이론

사실 회색지대전략이 학술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학술적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회색지대전략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합의도 미미한 편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학술적 경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지대전략을 규정짓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과 본질은 분명히 존재한다.

회색지대전략은 “그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전략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전략 행위가 사용되는 분쟁은 회색지대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회색지대전략의 본질은 전략 사용국이 정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전면적인 전쟁에는 이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안보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색지대전략은 대체로 국제정치에 있어 기존 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원하는 국가에 의해 필요에 따라(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회색지대전략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도의 모호성(ambiguity of intention)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는 쉘링(Thomas Schelling)의 무기와 영향력(Arms and Influence)에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이후 이 전략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⁴⁾

쉘링 이후,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에 이르러 다시 미국 국방부에 의해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회색지대전략을 전쟁과 평화 그 어느 쪽도 아닌 모호한 갈등으로 표현하며 이와 같은 미래의 안보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회색지대전략은 국가 간의 전쟁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거의 모든 점진적인 군사적 위협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 국가 내지 비국가 행위자들이 불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벌이는 안보 경쟁을 일컫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후, 2015년에 이르러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마자르(Michael J. Mazarr)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자르는 회색지대를 '수정주의적인(revisionist)' 내지 '현상변경을 원하는' 국가의 이익과 선호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말하며, 이 지역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진적인 회색지대전략의 의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⁵⁾ 그에 따르면 회색지대전략은 전쟁의 확대 가능성을 낮추되 시기를 거듭할수록 매우 조직적이고 통합된 비군사적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회색지대전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왔는데,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대리전(proxy warfare)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모두 점진주의, 의도의 모호성, 비군사조직 내지 준군사조직의 활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회색지대전략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이 때, 상대국은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하는 국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일관된 대응만을 구사하게 되면서 결국 수정주의적 세력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용인하게 된다.

또한, 카푸스타(Philip Kapusta)는 회색지대전략의 주요한 특징들로 분쟁을 일으키는 의도를 상대국이 알 수 없게 하는 모호성과 행위자의 불투명성을 말하고 있다.⁶⁾

그린(Michael Green) 역시 회색지대전략의 특성으로 비대칭성, 모호성, 점진주의를 꼽는다.⁷⁾ 이 때, 비대칭성은 모든 국가의 이익추구 방식이 상이한 맥락과 동인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익의 비대칭성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전통적인 힘에 기초한 능력의 비대칭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즉, 그린에 따르면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국과는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모호한 의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상대국의 능력을 약화시켜 능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보텔(Joseph L. Votel)은 회색지대전략을 정치/군사/경제적 경쟁 전략이라고 정의

4)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6).

5) Michael J.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Pennsylvania: Th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6) Philip Kapusta. "The Gray Zone". *Special Warfare*. Vol.28. No.4. (2015). p18-25.

7) Michael Green et al..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7).

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은 완전한 전쟁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평화로운 상태보다는 분명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한다.⁸⁾ 이 또한, 회색지대전략이 점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쟁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다양한 경쟁 수단임을 보여준다.

프라이어(Nathan Freier)⁹⁾는 회색지대를 안보 위협들이 혼재된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회색지대전략은 상대국의 저항을 축소하되 전략 사용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가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회색지대전략을 활용하는 국가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 창출을 위해 군사적, 준군사적, 비군사적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상대국의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어렵게 하는 모호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정삼만은 회색지대전략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들과 그로부터 볼 수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들을 종합하고, 회색지대전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밝혔다.¹⁰⁾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한 회색지대전략의 사례들을 밝히고,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제언을 토대로 함의를 도출했다.

반면 회색지대전략 연구를 확장하여 그것이 만들어낸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 더욱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알레시오(Patalano Alessio)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강압적인 행위들을 증점적으로 연구했는데, 이 경우 회색지대전략이라는 개념보다 복합전(hybrid war)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¹¹⁾ 그에 따르면, 회색지대전략은 전략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개념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이 명백하게 해양 분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해양 권익들을 누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의도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회색지대전략보다는 복합전의 한 부분으로써 회색지대전략이라는 수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회색지대전략은 한 국가가 정규 군대가 아닌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주로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대국은 전략 사용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평시와 전시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게끔

8) Joseph L. Votel. "Statement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Emerging Threats and Capabilities". *U.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2015). p. 1-21.

9) Nathan Freier et al.. "Outplayed: Regaining Strategic Initiative in the Gray Zone". (*Carlisle, Pennsylvania: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6).

10) Chung Samman. "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Theories and Practices". 『Strategy21』. Vol. 21, No. 1, 2018.

11) Patalano Alessio. "When Strategy is hybrid and not grey: reviewing Chinese military and constabulary coercion at sea".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6 (2018), p. 811-839.

만드는 모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회색지대전략의 본질과 공통된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남,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행위들은 대체로 회색지대전략의 한 축에 포함될 것이며, 이런 전략이 사용되는 남, 동중국해 분쟁도 회색지대 갈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 강조

다음으로 연구 질문 설정과 가설 수립에 앞서 본고의 주제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관련 선행연구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이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고조됨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중국의 해양전략과 전략투사 능력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외교안보 관련 잡지에도 수도 없이 기고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해군력 경쟁을 우려하고, 중국이 분쟁에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¹²⁾¹³⁾¹⁴⁾ 오헨런(Michael O'Hanlon)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방어적 위기관리의 틈새를 공략하고, 약해진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며 해양에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⁵⁾ 또한, 바티아(Kapil Bhatia)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도발, 해양영토에 관한 영유권 주장,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을 회색지대전략의 한 부분들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공세적이고 점진적인 분쟁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¹⁶⁾ 에릭슨(Andrew S.Erickson)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방어와 권익 수호 등을 위해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하면서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민병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조직인 해상민병대

12) CSIS Working Group on the South China Sea. "Defus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 Regional Blueprin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8).
 13) Kathleen H. Hicks et al.. "By Other Means, Part II: U.S. Priorities in the Gray Zon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9).
 14) Michael O'Hanlon. "China, The Gray Zone, and the Contingency Planning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beyon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2019).
 15) Michael O'Hanlon. "The Challenge of Confronting China Over a Gray Zone Crisis". 『The National Interest』. 2019.7.9.
 16) Kapil Bhatia. "Coercive Gradualism through Gray Zone Statecraft in the South China Seas: China's Strategy and Potential U.S. Options". *Joint Force Quarterly*. Vol. 91. No.4. (2018).

가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 행위자 중 하나라고 말한다.¹⁷⁾¹⁸⁾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분석대상인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이는 주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수기오(Takahashi Sugio)는 동중국해를 회색지대 혹은 복합전의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영토 주장과 같은 기정사실화 전략이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말한다.¹⁹⁾ 그는 동시에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일본의 억제 전략을 검토하고,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중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홉스(James Holmes)와 요시하라(Toshi Yoshihara)는 방공식별구역 침범, 해상민병대와 어선의 동원을 통한 해양 충돌, 외교적인 수사를 통한 해양영토의 기정사실화,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등이 모두 군사적, 외교적 강압 수단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이용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에서는 2010년 동중국해에서 처음 중국과 충돌한 이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해양경계나 영토, 주권 등을 놓고 벌이는 평시와 전시 사이의 매우 종합적인 갈등으로 이해하며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학계와 정부는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회색지대전략 연구가 활발하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더욱 강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아직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미중 간 패권 경쟁 양상,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방어전략에 따른 미국의 해양 전략²¹⁾,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쟁점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남중국해 분쟁 간의 상관관계, 중국이 해양에서 벌이는 분쟁에 있어 한국 해군이 취해야 할 정책 등에 관한 연구²²⁾가 주를 이룬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이

17) Andrew S. Erickson. "Exposed: Pentagon Report Spotlights China's Maritime Militia". 『The National Interest』. 2018.8.20.

18)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China's Maritime Militia: What It Is and How to Deal with It". 『Foreign Affairs』. 2016.6.23.

19) Takahashi Sugio. "Development of Gray-zone Deterrence: Concept building and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6. (2018). p.787-810.

20) James Holmes, Toshi Yoshihara. "Five Shades of Chinese Gray-zone Strategy". 『The National Interest』. 2017.5.2.

21) 김강녕.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Strategy 21』. 제20권 제2호. 2017.; 김건우, 전명종. "공해전투(ASB) vs. 반접근 지역거부(A2/AD): 미중 군사대결구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2호. 2015.

22) 김태성, 이상현. "중국의 군사력 증강(強軍夢)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과 군사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2018.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해양영토 분쟁보다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 조율이나 사드(THAAD, 고고도방어탄도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충돌이 더욱 증차대한 외교안보 의제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에 주목한 연구들이 더러 존재한다. 정구연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해양 패권 확장 등이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를 야기했다고 설명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중 해양 분쟁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회색지대 갈등 양상을 띄고 있다고 주장한다.²³⁾ 그녀에 따르면,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전략적 점진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안보전략으로, 향후 강대국들 간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 해양전략 변화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김진호는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의 특징과 의도를 파악하여 이에 관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²⁴⁾ 앞서 검토한 정구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는 중국이 점진적인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해양에서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간 어선과 민병대 등을 정규 군대와 적절히 결합하여 분쟁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길주는 회색지대전략을 중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본과 북한 등 동북아 국가 전역에 적용하여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²⁵⁾ 그는 각국이 한국에게 행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회색지대전략의 모호한 특성이 상대국의 주권침해와 안보위협을 야기하는지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예슬은 해상민병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논하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분석했다.²⁶⁾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연구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해양 분쟁에 직면해 있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실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하지만,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회색지대전략의 전반적인 특징(의도의 모호성,

23)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3호. 2018.

24) 김진호.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제2호. 2020.

25) 반길주.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군사』. 제7권. 2020.

26) 김예슬.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 해상민병대 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전략적 점진주의 등)과 의도(현상변경, 해양 패권 장악 등)에 대한 연구이거나 향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전망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포괄적인 수행 구조와 작동 방식에 관한 답을 얻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게다가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 연구에 있어 ‘회색지대전략’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불모지이자, 주변부에만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행연구들이 담지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 및 보완하고자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그간의 회색지대전략 활용 경향과 전략의 유형, 강도, 행위자 등을 분쟁 지역에 따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으로 비롯된 분쟁의 양상이 각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는 회색지대전략에 관련해 최초로 실행되는 연구로,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3. 연구 질문과 가설 및 연구의 구성

본고는 주된 연구 질문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과정에서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은 각각 어떤 메커니즘을 보이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메커니즘은 본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원리 내지 구조 등을 의미하는데,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 분석”이라 함은 1) 전략 수행의 빈도 2) 전략을 수행하는 행위자, 3) 전략의 유형(수행 방식)과 강도, 4) 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중국이 해양에서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의 전개 양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풀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가설들을 수립하고 논증하고자 한다.

[가설1] -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각 다른 ‘수행 구조(행위자/유형)’와 ‘경향성(빈도/강도)’을 보여왔을 것이다.

[가설2] - [가설1]에 따라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도 명백한 차이를 보여왔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양상’도 다를 것이다.

위의 가설들은 모두 “중국이 해양 분쟁에서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듯이 몇 가지의 단조로운 유형들로 구성되거나 모든 분쟁에서 유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분쟁 지역과 대상국에 따라 복합적인 수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함축한다. 그리고 이는 [가설1]과 [가설2]가 검증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검증되는 전제이다.

위의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차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에 활용할 양적 연구 방법론을 서술할 것이다. 필자는 가설들의 증명을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후 이것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연구 모델링을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 회색지대전략과 그것의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적 추상성을 극복하고 데이터들 간의 비교 및 분석이 원활하도록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해 분류한 뒤 범주형(이산형) 변수로의 조작적 정의를 거칠 예정이다. 제III장에서는 우선 제II장에서 만들어진 양적 모델을 이용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분쟁 지역 별로 진행하여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연도 별로 각기 어떤 메커니즘을 보이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제III장에서는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이 두 분쟁 지역에서 그간 어떻게 ‘구사(employ)’되어 왔는가와 같은 경향성과 더불어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성(construct)’되었는가와 같은 유형과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1]을 검증한다. 이어 제IV장에서는 [가설2]를 검증하고자 먼저 제III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회색지대전략의 구사에 주요 상대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과 상대의 대응을 분쟁 지역 별로 직접 조망시켜봄으로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분석이다. 결론인 제V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것들을 재차 강조하며 가설의 최종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이 현재에 주는 함의를 간단히 서술하면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론과 연구 모형 설정

1. [가설1], [가설2] 검증을 위한 양적 방법론

: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과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술한 가설들을 논증하기 위한 양적 방법론으로 2010년부터 2020년 06월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데이터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수행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차용할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 분쟁이라 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둘 이상의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 간 모든 형태의 다툼’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 분쟁에서 ‘전면전 개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중국이 활용하는 모든 군사/외교적 강압 사례들’은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수행에 활용하는 전략들은 대체로 회색지대전략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간을 2010년에서 2020년 06월 사이로 설정한 이유는 중국의 정책 목표이자 정치 담론으로서 해양대국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2007년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해양에 대한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을 하나의 패권경쟁 장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때가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가시화되었고, 남중국해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2007년을 위시해 중국이 자국의 잠재적 군사력을 조금씩 투사해왔다. 이런 연유로 2010년 이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과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과 분쟁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보다 유의미한 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2010년에서 2020년 06월까지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분쟁 동향과 사례들을 각각 연별로 수집할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쟁 추이를 살피기에 용이할 뿐더러, 후술할 연구 모형에 의거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경향성(빈도), 유형과 강도(구조), 행위자와 그에 따른 상대국의 대응을 모두 파악하는 데에도 수월하다. 또한, 동일 년도에 발생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밝혔듯이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위해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을 크게 1) 전략의 빈도, 2) 전략의 유형과 강도, 3) 전략의 수행 행위자, 4) 상대국의 대응 방식으로 구분해 개념화할 것이다. 이후, 2), 3), 4)번 범주에 대해서는 다시 하위 유형들을 나누어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거쳐 범주형(이산형) 변수로 변환할 것이다.

2. [가설1], [가설2]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 설계

위에서 밝힌대로 회색지대전략을 개념화하고, 이것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개념

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화 및 변수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련의 알파벳-번호들은 실제적인 값을 가지지 않는 명목 변수로, 쉽게 말해 ‘개념화된 범주와 그 범주에 속하는 유사한 세부 사례들을 유형화해 묶은 분류번호’에 해당한다. 후술할 모든 분석은 다음 장의 연구 모형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다.

[가설1] 검증에 필요한 연구 모형

A.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과 회색지대전략의 빈도(추이): 시계열 데이터에 의거해 해석

B. 회색지대전략의 수행 행위자

- B1 - 중국 정부 (해군 및 공군, 해양 경찰, 해양 감시선/정찰대 등)
- B2 - 중국 정부 (외무부,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 및 관료조직)
- B3 - 중국 민간 (해상민병대, 민간 어선)
- B4 - 혼합 (해양조사선: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조사선이 모두 존재)

C. 회색지대전략의 유형

* 아래 분류된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제외하고 분석한다.

- C1 - 해양 내 선박의 진입, 해양 내 무력 충돌 및 상대국 선박과의 조우 등의 직접 행위
- C2 - 항공기의 상공 진입, 영공 내 무력 충돌 및 상대국 항공기와의 조우 등의 직접 행위
- C3 - 군사훈련, 정찰, 타국의 군사활동 방해, 해양조사, 어업활동 등의 간접 행위
- C4 - 분쟁 지역에서의 신무기 배치 및 신기지 건설 등의 간접 행위
- C5 - 국내의 군사력 현대화 (군단 재편성, 군단 이동/동원) 등의 간접 행위
- C6 - 외교적 성명 발표를 통한 분쟁 상대국 비판
- C7 - 분쟁지역에서의 인공섬 건설, 역사적 권리 주장, 분쟁 지역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지도 배포, 민간 항공기 입출항 허가 등의 자국 영토에 대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가설2] 검증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연구 모형

D. 상대국의 회색지대전략 대응 방식

- D1 - 직접 대응 (대응 경고, 대응 출격, 대응 사격, 선박 나포 등)
- D2 - 간접 대응 (신무기 배치, 군사력 현대화, 실전 군사훈련, 군사 정책 실행 검토 등)
- D3 - 동맹 활용을 통한 억제
- D4 - 외교적 대응 (외교적 성명 발표를 통한 비판/비난, 자국영토의 기정사실화 등)

2010년에서 2020년 06월까지의 분쟁 동향 및 회색지대전략 사용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2차 자료인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세계분쟁정보(WoWW) 내의 분쟁데이터들²⁷⁾을 기초로 했으며, 이 데이터들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시기(2010년, 2016년, 2020년)의 데이터들과 일부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직접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한 1차 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둘을 재구성한 자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필자는 ‘수집 가능한 범위’의 모든 분쟁 현황을 최대한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태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사용의 정확한 횟수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으로 제공된 바 없어 오직 직접 수집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연구해야만 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기초 데이터나 연구를 위해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데이터들도 당연히 일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연도 별 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사용에 관한 정확한 빈도(횟수 내지 추이)는 실제와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것이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핵심 가설 논증에 있어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덧붙여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유형과 강도를 위에서처럼 7가지로 세분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회색지대전략과 그로 인한 갈등을 설명할 때 대부분 느슨한 삼분법적 방식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은 크게 7가지의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연구하려면 기존의 분류 방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필자가 분류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유형들은 물리적-직접적 행위/물리적-간접적 행위/외교적 행위로 나누어 강도의 변화를 한 눈에 인지하기 위한 구별인 동시에, 회색지대전략이 수행된 위치(해/공)와 그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분류이므로 그리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엄밀성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분류와 그것의 구체적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27)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WoWW)

<https://www.kida.re.kr/frt/contents/frtContents.do?sidx=2262&depth=3&lang=kr>

(최종 검색일: 2020.07.01.)

남중국해 분쟁 데이터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91&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lang=kr>, (최종 검색일: 2020.07.01.)

동중국해 분쟁 데이터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9&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lang=kr>, (최종 검색일: 2020.07.01.)

그렇다면 상술한 연구 모형을 토대로 본문에서 [가설1]과 [가설2]를 증명하고자 한다.

Ⅲ.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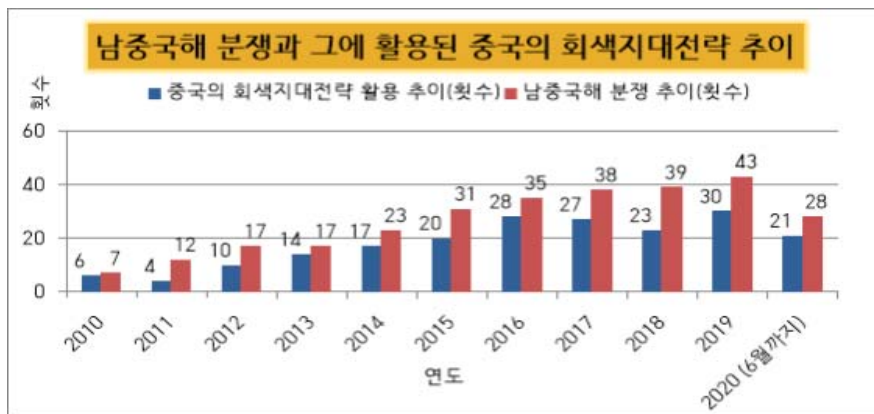
1. 남중국해 분쟁에서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

1.1 분쟁의 연도 별 추이와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연도 별 활용 추이 분석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남중국해 인근의 국가들이 남중국해 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과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오래된 분쟁이다. 중국은 분쟁 초기부터 남중국해 인근 해양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다양한 방식을 겸용하여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²⁸⁾ 그리고 비로소 2010년에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실상부한 영토주권 문제로 천명하고 수호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남중국해 분쟁 개입에 소극적이던 미국 역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사안”임을 밝히며 중국 정부의 핵심이익 규정에 즉각 반발했고, 이후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워 중국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다음의 <표 1>을 참고하면, 2010년부터 2020년 06월까지 남중국해 분쟁의 연도 별 발생 추이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활용 추이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8) 1974년과 1988년에 중국은 베트남과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중국이 승리하여 이 섬들을 단독 점령하게 되었다. 이외에 1992년과 1999년에도 중국과 필리핀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이는 모두 중국이 오래 전부터 남중국해 지역에서 타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남중국해 분쟁 빈도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활용 빈도는 모두 2010년 이래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먼저, 남중국해 분쟁의 추이는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30회를 웃돌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의 중요한 재판이 벌어졌던 2016년²⁹⁾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에도 분쟁은 꾸준히 증가세를 띄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한 추이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다가 2016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재판이 있던 시기 다소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소강상태를 보였고, 2019년에 이르러 다시 그 횟수가 급증하며 10년 간의 기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 중에서도 2016년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회색지대전략의 사용 빈도가 폭증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PCA의 재판을 앞두고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고,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남중국해 주변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는 압박 수단을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주변국에게 관철하고, 회색지대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고수해 갈 의도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PCA의 재판이 완료된 이후 중국은 판결에 승복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 이후에도 남중국해가 여전히 자국의 핵심이익이며, 회색지대전략은 이를 수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어전략임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과 2018년에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하여 일으킨 분쟁의 추이가 다소 낮아진 현상에 대한 이유 역시 몇 가지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2017년 이후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이 이전과 달리 본격화되면서 전략 수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까지의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대체로 외교적인 방식(성명 발표를 통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비판, 다자 간 협력 시도 등)으로 대응해 왔다.³⁰⁾ 하지만, 트럼프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국에 보다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펼쳤다. 2017년 5월 24일

29) 2013년 1월 필리핀은 2012년 4월에 중국이 스카보러(Scarborough) 암초에 대한 불법점거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위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Arbitration, 이하 PCA)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 및 영유권에 대한 실효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고, 2016년 7월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30)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은 2013년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해 본격화되었다. 이전까지는 소극적 관여자의 입장으로 분쟁 관리에 주력했으나, 오바마 재선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Pivot to Asia)과 더불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다. 2015년에는 최초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는 등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온건한 태도로 중국의 분쟁 전략에 대응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최초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고, 이후 일본과 공동으로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흔히 'Five Eyes'로 불리는 상호정보동맹국 중 영국과 호주가 참가하는 공동훈련을 남중국해에서 행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지속적으로 신무기를 배치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2017년 8월에는 미국이 베트남에 핵 항모를 입항시키고, 이지스함 작전 등을 수행함에 따라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더욱 단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8년 역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과 단독 군사훈련을 전개하며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차단에 나섰다. 동시에 주변국들을 지원하며 중국의 해양 패권 달성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파악하고 국면 전환을 노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 시기 회색지대전략의 활용을 잠시 주춤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2017년과 2018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움직임이 약화시킨 요인은 이 시기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된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과 아세안(ASEAN) 국가들도 적극적인 상호 공조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2017년과 2018년 미국과의 공동훈련에 참여하거나 그들로부터 무기와 함대를 지원받고 수입하는 등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막아내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는, 미국의 공세적 대응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일부 평화적인 협력의 시도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전략을 완화하게 만드는 주변국과의 화해 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군사협력을 위한 정부 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위기관리체제 구축에 합의했고, 2018년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자원을 공동탐사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완화 움직임에 기여했다. 이처럼 분쟁의 전개에 있어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한 긴장 해소의 시도가 존재했기에 2017년과 2018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남중국해에서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향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남중국해 분쟁의 양상 또한 격화되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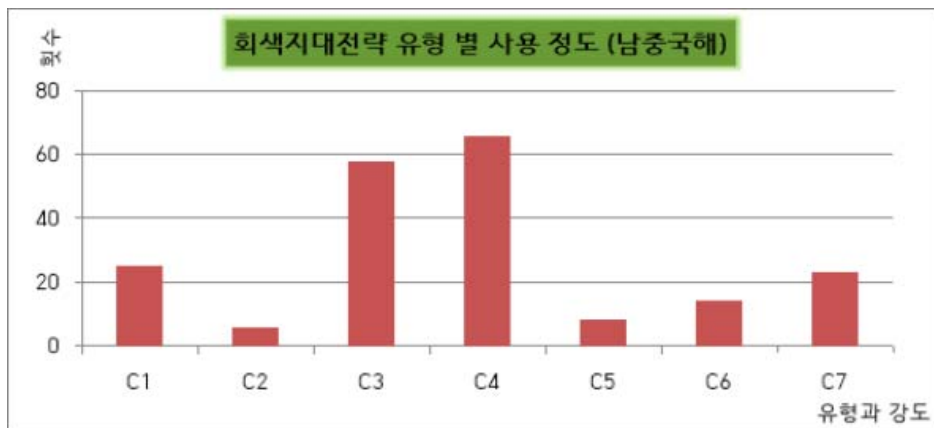
1.2 남중국해 분쟁의 회색지대전략 유형(종류) 분석

2010년에서 2020년 6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수행했던 회색지대전략의 유형을 분석했을 때, 다음 장의 <표 2.1>, <표 2.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1>

시기/유형분류	C1	C2	C3	C4	C5	C6	C7	총합
2010년			2회	3회			1회	6회
2011년	2회					2회		4회
2012년			4회	2회		3회	1회	10회
2013년	2회		6회	1회	1회	2회	2회	14회
2014년	3회	2회	4회	4회			4회	17회
2015년	2회		7회	6회		2회	3회	20회
2016년	4회		7회	12회		1회	4회	28회
2017년	2회	2회	8회	10회	1회	4회		27회
2018년	3회	2회	4회	10회	3회		1회	23회
2019년	3회		9회	13회	3회		2회	30회
2020년	4회		7회	5회			5회	21회
총합	25회	6회	58회	66회	8회	14회	23회	200회

<표 2.2>



위와 같이 <표 2.1>과 <표 2.2>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해 주로 활용되는 회색지대전략 유형과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C4와 C3의 회색지대전략이 차

례대로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주로 분쟁 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하고, 신기지를 건설하는 등의 간접적-군사적 행위를 바탕으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레이더 탐지기 등을 이용해 타국의 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타 군사 장비를 동원해 해양경찰에 나서고, 해양 탐사선과 어선을 이용한 해양조사와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도 회색지대전략을 활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C3, C4의 회색지대전략은 대체로 C5의 회색지대전략 즉, 군사력 현대화를 동반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강군몽과 해양 권익 수호를 기치로 2017년 이후 주로 그에 걸맞는 군사제도 상시 개편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해왔다. 특히, 줄곧 핵심이익으로 선포한 남중국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해군의 창설과 군사제도의 재편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10월 남중국해의 방어를 위해 남해함대 하에 해상구조대대를 새로 창설하고, 남해함대에게 북해함대의 해상 구조 활동을 일부 위임함에 따라 군사력 확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남해함대는 광저우 시에 위치하여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주된 작전지역으로 삼는 함대로,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2018년 1월 남중국해를 관할하던 공군 장성이 중국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이하 중국 PLA)의 최고 지휘부에 합류하면서 군사직제가 개편되었고,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신무기 배치와 일맥상통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상응하는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부터 남중국해 곳곳에 자국의 신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에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일부인 우디 섬을 중심으로 전투기 J-11, 전투기 JH-7 등을 배치했고, 남중국해 북부기지를 중심으로는 공대공 미사일 P15, 지대공 미사일 HQ-9, 조기경보기 KJ-500, 해상초계기 B-5002, 4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26 등을 배치했으며, 전투기 격납고와 군사 및 환경관측소와 같은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2018년 2월에는 ICBM DF-5를 시험 발사한데 이어 구축함 052D를 남중국해에 배치했으며, 남중국해와 근거리의 광둥성에 무인함정을 시험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전투기 SU-35와 4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순항미사일 YJ-12B, 지대공미사일 HQ-9B, 폭격기 H-6K 등을 차례로 실전 배치하고, 항모전단을 대거 투입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당해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남중국해 상에서 개최되기도 했으며, 이 행사에서 IRBM DF-26의 실전전력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세계 최초의 수륙양용 무인패속정을 선보이며 남중국해에 이를 실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중국은 작년 칭다오에서 열린 국

제관함식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신무기의 남중국해 배치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게다가 2017년 이래로 중국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해군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남중국해에 배치되는 항공모함들을 비롯해 미사일 호위함 054, 정찰위성 10기, AI 잠수함 등이다. 이처럼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수 년 간 현대화된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회색지대전략을 택해왔고, 이 같은 군사력 증강과 현시는 2016년 PCA 재판과 미군 함대의 남중국해 일대 진입 이후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다. 앞서 회색지대전략의 추이 변화 이유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에도, 2016년을 기점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C3과 C4 그리고 C5를 활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해오고 이것이 심화되고 있음은 타당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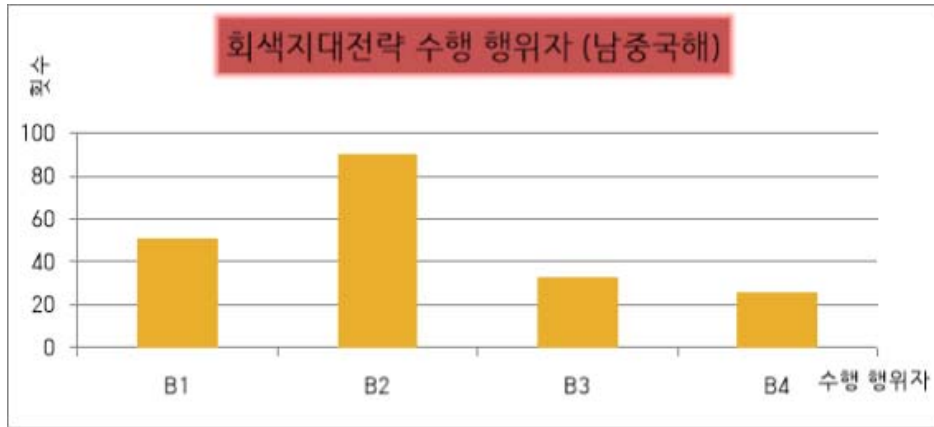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위에서 보듯이 중국은 201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올수록 C6에 해당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 참여 또는 C7과 같은 인공섬 건설 및 민간항공기 입출항 허가 등을 통한 자국 영토의 기정사실화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남중국해 상에서 미국이나 주변 동맹국들과 무력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능성을 꾸준히 높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중국의 이런 회색지대전략 활용은 남중국해를 자칫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신냉전의 장(場)’으로 기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실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색지대전략의 종류 중 하나인 ‘기정사실화 전략’이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주된 회색지대전략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물론, 기정사실화 전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다양하겠지만, 본고의 연구 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실행했을 경우, C7의 기정사실화의 비중은 전체 회색지대전략 사용도 중 10% 남짓에 불과했다. 다만, 이러한 기정사실화 전략은 거의 매년 꾸준히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이 전략이 한 번 시행될 경우 해양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미치는 정치/외교적 상징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지대하기에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3 남중국해 분쟁 회색지대전략의 주요 행위자 분석

다음(〈표 3〉)은 남중국해의 회색지대전략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표 3〉



〈표 3〉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는 압도적으로 정부 행위자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B2 즉, 중국의 정부 부처 및 관료조직이었다. 이는 앞선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주로 신 무기 배치 및 신기지 건설, 군사력 현대화, 외교적 비난 성명 발표, 해양영토에 대한 기정사실화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의 대다수 역시 정부 부처와 관료조직임은 타당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B1 즉, 중국 PLA의 해군 및 공군과 해양 경찰, 해양 감시선과 정찰대 등이 회색지대전략 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상당하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서 선박들의 해상 진입이나 조우 등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정규 군대보다는 해양 경찰과 같은 준군사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규 군대보다는 준군사조직을 동원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 중국이 정부 재편 과정에서 출범시킨 ‘국가해양국’의 위상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결과인데, 당시 중국은 해양 분야의 형사 사법기관들 간 권한 다툼을 해소하고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의 분쟁 지역 상에서 작전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정식명칭으로 ‘국가해양국 및 국가해경국(China Coast Guard)’을 설치했다. 이후 중국은 이 조직의 권한을 강화시킴에 따라 공안부의 지도 하에 경찰권을 행사하고, 해경사령부와 해경지휘센터가 해양법 집행과 해경부대 훈련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중국이 기존의 해양 분야 형사 사법기관들을 이처럼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통합한 이유는 무엇보다 ‘대양에서의 해양권의 보호’와 ‘분쟁 지역 작전 수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

수집한 데이터들로부터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아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별이는 (C3 회색지대전략에 해당하는) 해양조사와 해양경찰의 대부분은 해양 경찰 순시선에 의해 이루어졌고, (C1 회색지대전략과 같은) 크고 작은 해상 무력 충돌에도 무장한 해양 경찰이 관여한 정황이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해양 경찰이 상대 해군이나 정부 해양조사선 등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2013년 국가해양국 출범 이래 정기적으로 행하는 연례 군사 훈련에 해양 경찰이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관할권 중첩수역이나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침범해 순찰이라는 명목 하에 해상 활동을 전개하는 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처럼 해양 경찰이 남중국해 상의 회색지대전략 구사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여타 군사 행위자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중국해 분쟁에만 국한시켜 보았을 때,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직접 수행하는 주된 행위자는 해상민병대와 어선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오히려 다소 배치되는 경험적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양 경찰과 해상민병대를 통한 회색지대전략 수행 횟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 동중국해 분쟁에서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

2.1. 분쟁의 연도 별 추이와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연도 별 활용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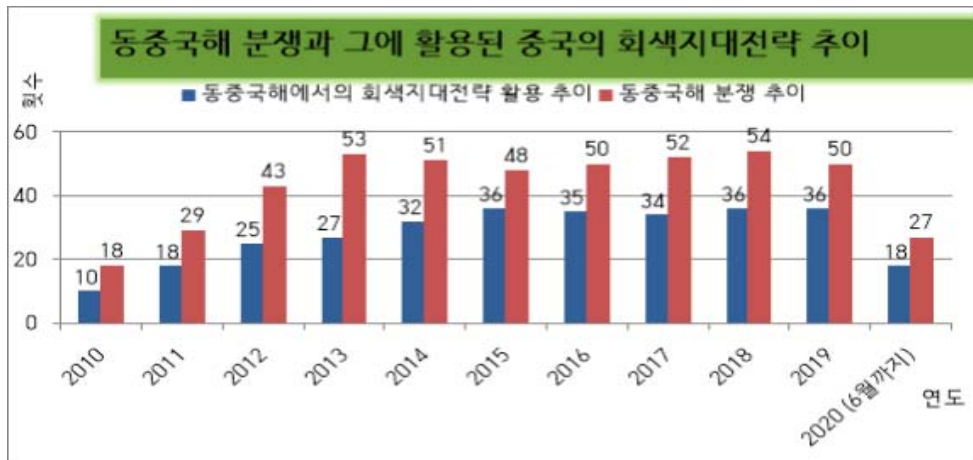
동중국해 분쟁은 쉽게 말해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놓고 별이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마찬가지로 이 섬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은 도서 영유권 귀속 문제와 더불어 해양자원과 해양안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토대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본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은 1972년 중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저우언라이가 명확한 의견 표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1978년 덩샤오핑 역시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분쟁은 “미해결 상태로 보류된 채” 양국의 현안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2년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영해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法)’을 발표해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중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시함에 따라 다시 분쟁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³¹⁾

이후, 동중국해 분쟁은 2010년 중국의 어선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직접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2010년을 기점으로 한 분쟁의

31) 한국국방연구원(<https://www.kida.re.kr>).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최종 검색일: 2020.7.20.)

재점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동아시아 역내에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끊임없이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0년 이후 중국이 지속적인 해양 팽창과 해양력 강화를 선언함으로써 인해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강력한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충돌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남중국해 분쟁과 유사하게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며 자국의 안보이익과 목표를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표 4〉)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동중국해 분쟁의 연간 추이와 회색지대전략의 연간 활용 추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4〉



우선,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중국해 분쟁의 추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2014년과 2015년에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비슷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로 많은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던 2013년을 기점으로 분쟁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동중국해 분쟁이 중국의 일방적인 작용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일본이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자극한 원인도 분명히 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추이 또한 이와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처음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은 2배 이상 회색지대전략 사용이 증가했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분쟁의 약 60%~7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전체 분쟁의 추이가 소강 상태를 보인 것은 2014년에 있

었던 중국과 일본 간의 화해 및 협력 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8월 중국과 일본은 정부 간 동중국해 위기관리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고, 다음 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분쟁의 해결과 갈등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미국도 동중국해 분쟁 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2014년 4월에는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대립 완화의 시도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동중국해 분쟁이 짧은 기간 동안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기에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활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분쟁에서 회색지대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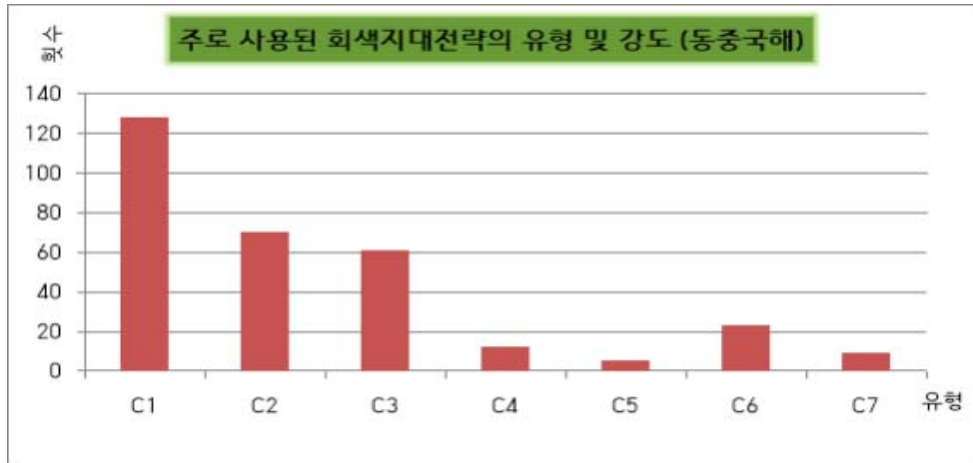
2.2. 동중국해 분쟁에서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유형(종류) 분석

다음(〈표 5.1〉과 〈표 5.2〉)을 통해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유형과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1〉

시기/유형분류	C1	C2	C3	C4	C5	C6	C7	총합
2010년	2회		2회			6회		10회
2011년	4회	3회	5회	2회		4회		18회
2012년	11회		3회	2회		7회	2회	25회
2013년	13회	10회				4회		27회
2014년	8회	13회	11회				1회	33회
2015년	12회	9회	8회	3회		2회	2회	36회
2016년	10회	14회	9회	2회				35회
2017년	18회	5회	7회	2회	2회			34회
2018년	16회	7회	9회	1회	2회		1회	36회
2019년	24회	9회	3회					36회
2020년	10회		4회		1회		3회	18회
총합	128회	70회	61회	12회	5회	23회	9회	308회

〈표 5.2〉



〈표 5.1〉과 〈표 5.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먼저,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에서 C1에 해당하는 회색지대전략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동중국해의 전략 수행 과정에서 거의 42%에 달하는 비중을 점했다. 이는 중국이 일본과의 분쟁에서 지속적으로 자국의 선박을 분쟁의 중심이 되는 지역(인근 도서나 주변수역 등)에 진입시켜 상대국의 선박과 대치하고, 그로 말미암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동중국해 분쟁에서 직접적·군사적 특성을 보이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행위는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점진적인 살라미 전술의 영역에 부합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색지대전략 사용 경향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 예컨대, 2010년 9월에 발생한 첫 직접 충돌에 이어 2011년에도 중국 어선이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그 횟수가 부쩍 증가하여 중국의 해양 감시선이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진입하여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나 해상자위대 소속 함대 등과 여러 차례 대치를 이어갔다. 게다가 같은 해 중국의 해양경찰 순시선이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거나, 중국과 일본의 군함이 해상에서 조우하는 등 해양에서의 직접 충돌이 두드러졌다. 2013년 1월에는 중국의 054형급 호위함에 해당하고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차용한 장카이1급 호위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탑재된 헬기를 사격 조준하며 고도의 긴장을 이어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중국의 전통적인 호위함인 장웨이2급 호위함과 해양감시선 3척이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헬기를 사격 조준해 위협하기도 했다. 또

한, 당해 4월, 5월에는 해양감시선이 동중국해 상에 진입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중국 해군 잠수함이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일본과의 접속수역을 잠항하면서 갈등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같은 해 7월, 8월, 9월에는 중국의 해양감시선은 물론 해양경찰 순시선까지 가세하여 동중국해 분쟁 지역을 오랜 시간 항해했으며,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부속도서 영해에 진입하여 순찰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해양 내 무력 시위 내지 상대국과의 직접 충돌을 통한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2013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동중국해 분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와 분쟁 상황을 훨씬 악화시켰다. 동중국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은 물론,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미일동맹을 내세워 미국도 동중국해 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도 C1 회색지대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략 수행은 계속되었다. 중국은 해양감시선과 해양경찰 순시선을 동중국해에 연속으로 투입하고, 해군으로 하여금 센카쿠열도 부근을 항해하도록 지시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최초로 무장한 해양경찰 순시선이 진입하여 일본 선박과의 대치를 이어갔다. 중국의 이와 같은 회색지대전략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과감해지고 있으며, 주로 해양경찰 순시선, 해양감시선, 해군 함대를 번갈아 이용해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그 횟수가 1.5배 가까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중국의 해양경찰 순시선이 일본의 영해와 일본과의 접속수역에 줄곧 모습을 드러내며 회색지대전략의 수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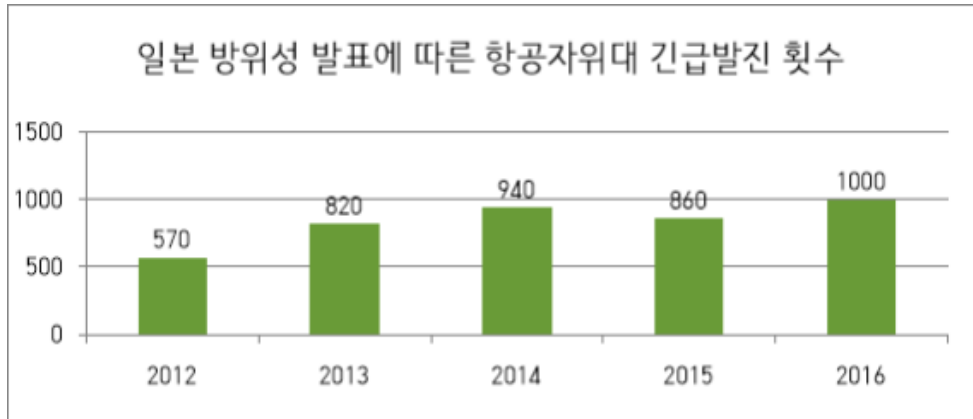
또한,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C1의 방식에 뒤이어 C2 및 C3의 전략도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실질적인 해상 전략과 더불어 C2에 해당하는 상공 전략도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작전 관할 영역과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군사적이고 직접적인 전략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상대를 자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술할 동중국해 분쟁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표 6〉)에서와 같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기 긴급발진 횟수가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32)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https://www.mod.go.jp/>) (최종 검색일: 2020.7.18.)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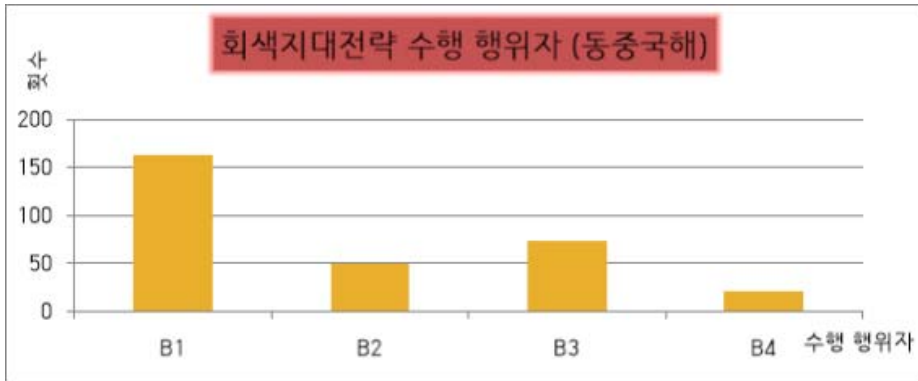
〈표 6〉에 명시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 사례 중 대부분은 동중국해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견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했을 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횟수가 2배 가량 증가했고,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일본 항공기의 긴급발진 횟수가 다소 줄었지만, 2016년에 1000회 가량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동중국해의 안보가 여전히 불안정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필자가 분석한 C2 회색지대전략의 사용 추이와도 유사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6〉의 2012년~2013년 사이의 긴급발진 횟수 차이가 2013년~2014년 사이의 횟수 차이에 비해 매우 큰데, 이는 〈표 5.1〉의 C2 회색지대전략 사용 경향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표 6〉의 2013년~2016년까지 발표된 긴급발진 횟수의 변화를 볼 때,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C2 회색지대전략 사용은 줄어들었고 2016년에 다시 1.5배 가량 증가했다는 〈표 5.1〉에 명시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2.3 동중국해 분쟁 회색지대전략의 주요 행위자 분석

이번에는 동중국해 분쟁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는 중국의 주요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표 7〉)의 표에 근거해 살펴본다.

〈표 7〉



〈표 7〉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는 남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행위자였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B2 즉, 정부 부처나 관료조직이 아닌 B1에 해당하는 중국 PLA의 해군 및 공군과 해양 경찰, 해양감시선과 정찰대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의 주체였으며, 전체 회색지대전략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군대보다 해양 경찰, 해양감시선과 정찰대의 역할이 매우 컸고, 이들은 해군의 전략 수행 능력을 보완 및 강화해 주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 동중국해에서의 소모적인 충돌을 지속해 왔다. 이는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볼 수 있는 전략 수행의 공통된 특징인데,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정부 직속의 준군사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상술한 동중국해 분쟁에서 사용된 회색지대전략의 유형과 강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동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이 높은 수치로 C1과 C2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회색지대전략에 접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 분석 결과는 매우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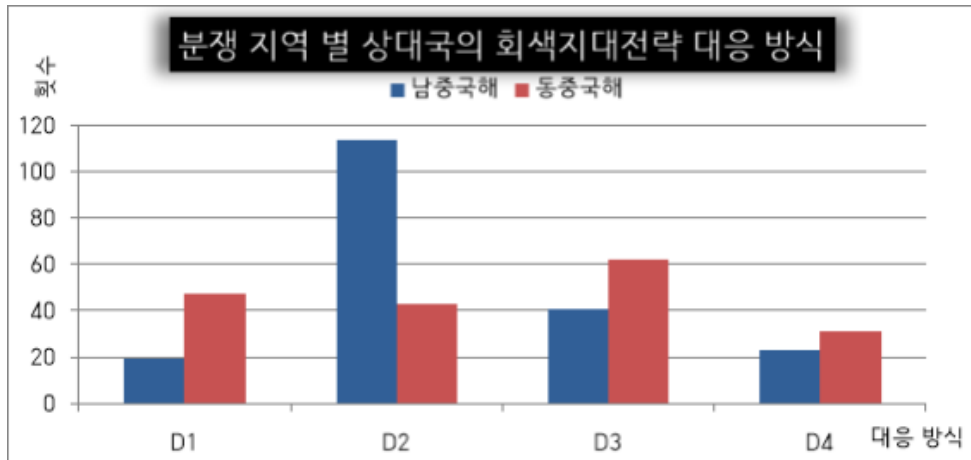
동중국해 분쟁의 회색지대전략에서는 한편, B3과 같은 민간 행위자의 비중도 약 25%에 달할 만큼 적지 않았다. 즉, 이는 동중국해에서 해상민병대와 민간 어선 역시 회색지대전략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 기능해 해상에서의 전략을 수행하는 형태로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움직임은 볼 때, 민간 어선이 아무 예고 없이 분쟁 지역에 오랫동안 출몰하는 사례나 조업을 명분 삼아 상대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퇴거 조치에 불응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더러 심지어 이런 사례가 2019년 이후 부쩍 늘어난 점은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동중국해의 회색지대전략 구사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주체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Ⅳ. 중국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양상 비교

1. 분쟁 지역 별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 방식 비교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분석 대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각 분쟁 상대국들이 회색지대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사용되는 회색지대전략의 다차원적인 구조들이 곧 분쟁의 전개 양상 차이까지 견인한다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분석이다. 다음(〈표 8〉)을 참조하면, 각 분쟁 상대국들이 2010년 이래로 올해 6월까지 중국이 활용해 온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8〉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이 남중국해 분쟁에서는 압도적으로 한 가지 방식(D2)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해주는 경험적 사례들에 근거해보면, 실제로 남중국해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에 맞서 미국과 ASEAN 분쟁 당사국들의 신무기 배치와 신기지 건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경과 내지 주기 역시 중국이 군사력 현시 전략을 실행한 직후 머지않아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간접 대응 방식은 특히, 2017년에는 15회 가량으로 이전에 비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시진핑 정부가 집권2기에 접어들면

서 남중국해 분쟁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가, 트럼프 정부 또한 남중국해 분쟁에서 공세적인 중국 견제 정책을 투사한 결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훈련 등이 정례화되고 있으며, 2015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최초로 시행한 데에 이어 그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중국해 분쟁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개 복합적인 방식으로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대응이 혼재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D3과 같은 동맹을 활용하는 대응 방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와는 달리, 회색지대전략 대응을 위한 신무기 배치나 신기지 건설 등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오히려 D2와 같은 간접적 대응의 사례들을 상세히 살펴 보면 단독 내지 공동 군사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는 분쟁 당사국들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정합적인 결과이며, 일본과 같은 주요 분쟁국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달리 동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한 대응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에 발생한 중일 간 최초 충돌 이후 약 3년 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유화를 시도하거나 주기적으로 정부 관료들을 파견하는 것을 통해 이를 자국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외교적 수단을 줄곧 이용해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D1 방식 즉, 무력을 동원한 직접 대응을 더 많이 택한 쪽은 동중국해 분쟁의 상대국들이었다. 앞서 3장의 분석을 토대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동중국해 분쟁에 동원하는 회색지대전략은 비교적 해양과 상공에서의 직접적인 군사활동 내지 해양에서의 정찰 및 어업활동과 연계되어 있기에, 상대국 또한 즉각적인 직접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데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몇 차례 언급했듯이 남중국해의 중국 회색지대전략은 간접적인 행위에 치중해 있기에 상대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필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분쟁의 당사국들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해 분쟁 관리를 해 온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분쟁이 전개되는 양상도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2의 검증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설의 검증 결과를 서술할 결론에 앞서 최종적으로 남중국해와 동

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보이는 회색지대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비롯한 분쟁의 전개 양상을 비교해 보겠다.

2.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에 따른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 양상 비교와 전망: 유사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분석한 약 10년 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남중국해 분쟁과 동중국해 분쟁에서 다르게 구사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분쟁 지역 별로 활용되는 회색지대전략의 유형과 강도와 그에 따른 분쟁 상대국의 대응 방식이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분쟁이 전개되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상대국들이 모두 주로 신무기 배치, 신기지 건설, 군사력 현대화 등의 전략과 그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기에, 군사력 경쟁과 군비 경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갈수록 보이고 있다. 이는 강한 해군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보유한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내적 균형의 방식'을 바탕으로 대(對)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회색지대전략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대체로 중국의 정부 부처와 관료 조직이므로 남중국해의 회색지대전략은 상대국에게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며, 당연히 간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변 상대국들 특히, 미국을 위시한 다른 동맹국들(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회색지대전략 강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잠식하는 군사적 문제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 분쟁은 일종의 '틔포텟 전략(tit-for-tat strategy)'의 발현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중국이 C4나 C3, C5 등의 회색지대전략 유형들을 주축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현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세력 강화 및 패권 장악의 욕심을 드러내자, 중국이 사용하는 전략을 그대로 자신들의 대응 방식으로 삼아 즉각 되갚아주는 형태의 갈등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전략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협력과 분쟁의 공동 관리를 시도한다면, '틔포텟 전략'이 본래의 의도대로 실패를 새롭게 구축하는 배경으로써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와 같은 분쟁의 전개 양상에 미국이라는 변수가 꾸준히 관여해 중국과 유사한 방식의 대응을 이어가면서 오래 전부터 우려되었던 신냉전의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역내 안보 불안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비록 방어전략이라는 명분 하에 남중국해에서 더 잦은 회색지대전략을 전개하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미국이 중국의 전략 사용 의도를 지역 패권 장악과 현상타파로 받아들이는

한 전쟁의 가능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수행되는 중국의 회색 지대전략으로 비롯한 과도한 해양 군비경쟁과 최첨단무기의 개발경쟁은 상대에 대한 군사적 우월전략으로 인해 상호 신뢰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동중국해 분쟁에서는 동맹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시된다. 동중국해 분쟁의 주요 상대국인 일본이 중국의 C1 내지 C2 회색지대전략에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을 주로 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남중국해 분쟁에 비해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세력균형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남중국해는 중국의 힘이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일방적인 중국의 전략 구사와 세력 확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동중국해는 중국과 대등한 힘을 가진 일본과 미국 등의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응하여 각축을 벌이는 형세로 분쟁이 전개되기에 중국이 쉽사리 확전(廓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자국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일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적 균형의 방식'을 선택해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응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주변국들에 비해 중국에 보다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V. 나가며: 최종 가설 검증 결과 도출 및 함의

정리하면, 본 연구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양적 연구)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각 분쟁의 전개 양상을 비교했다. 이는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던 회색지대전략에 관련된 경험적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으며, 중국이 해양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구사해 오고 있는 회색지대전략의 작동 구조를 '추이와 경향', '수행 행위자', '유형과 강도', '상대국의 대응'이라는 다층적인 구분을 통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수 년 간의 회색지대전략 연구가 대부분 몇 가지 사례에만 국한되어 단편적으로 이해되고, 그것의 특징과 의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분쟁 지역 별로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사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해양 분쟁에서 발현되는 방식에 천착하여 이 현상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했으며, 그런 이유로 기존의 간소한 회색지대전략 범주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위의 범주화를 새롭게 시도했다. 이는 연구 모형과 함께 본고의 초반에 제시한 가설에 앞서는 문제의식으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모든 해양 분쟁에서 세 가지의 단조로운 범주와 일반적인 특징을 토대로 유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분쟁 지역과 대상국에 따라 복합적인 수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결국 필자가 설계한 연구 모형과 10년 간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설1]과 [가설2]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회색지대전략의 메커니즘에 대한 종합적인 추론과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먼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각 다른 구조와 경향성을 보여왔을 것이라는 [가설1]은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주로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의 유형과 강도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했고, 그 행위자 역시 동일 범주 내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각 분쟁 지역에서 활용되는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 방식 역시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쟁의 전개 양상도 서로 구별될 것이라는 [가설2]도 검증되었다. 큰 틀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은 세력균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분쟁 당사국들이 각기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세력이 약한 국가들이 대거 분포해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시와 해양정찰/해양조사/어업활동 등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해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인 대응 행태를 보였고, 티포택 전략도 적극 활용해 중국이 사용하는 회색지대전략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하지만, 동중국해에서는 자국이 자체적으로 힘을 강화하고 군비/기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일본과 미국 간 동맹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었고, 방위지침과 국제규범 등에 근거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적 균형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분쟁 관리와 관여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도 이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해왔던 회색지대전략의 주요 전술 중 하나인 ‘기정사실화’는 경험적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모두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으로 기능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는 단지 중국이 행사하는 정치/외교적 수사 내지 상징의 의미로써 분쟁이 격화되지 않았던 2010년대 초반과 중반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략이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정사실화 전략은 여전히 매년 수 회씩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에서 활용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매우 다양한 유형들을 지니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체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구사된다는 측면에서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와 더불어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안보 위협을 가하면서 전면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제나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이런 전략을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하면서 해양 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 사용 의도는 여전히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쟁 관리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기도 한다. 결국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에서 활용하고 있는 회색지대전략에 포섭된다면, 분쟁에 대한 적실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뿐더러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양에서의 점진적인 패권 주도과 자칫 현상 변경까지도 강화하게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각 분쟁에서 기능하는 포괄적인 구조를 밝혀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근 10년 간의 사례에 의거해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해양 분쟁의 전개 양상과 연결지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차츰 이와 같은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해양 분쟁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한국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한국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도발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이 중국과 경계획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어도 주변수역과 서해 인근에서 민간 어선을 가장한 해상민병대의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데다가 도발 강도 역시 거세지고 있는 예시를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인근에 지속적으로 중국 군용기가 출몰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회색지대전략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구사하는 분쟁 전략에 맞서 우리의 해양안보와 해양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더욱 강한 해군력과 참신한 해양 전략의 마련은 이제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영해와 동아시아 역내 해양의 방어는 물론 타국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지금보다 세계적인 대양 해군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CSIS Working Group on the South China Sea. *Defus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 Regional Blueprin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8.
- Freier, Nathan et al.. *Outplayed: Regaining Strategic Initiative in the Gray Zone*. Carlisle, Pennsylvania: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6.
- Green, Michael et al..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7.
- Hicks, Kathleen H. et al.. *By Other Means, Part II: U.S. Priorities in the Gray Zon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9.
- Mazarr, Michael J..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Carlisle, Pennsylvania: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 O'Hanlon, Michael. *China, The Gray Zone, and the Contingency Planning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beyon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2019.
-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6.

2. 논문

- 김강녕.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Strategy 21』. 제20권 제2호. 2017.
- 김건우, 전명중. “공해전투(ASB) vs. 반접근 지역거부(A2/AD): 미중 군사대결구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2호. 2015.
- 김예슬.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 해상민병대 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김진호.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제2호. 2020.
- 김태성, 이상현. “중국의 군사력 증강(強軍夢)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한국의 안보 정책방향과 군사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2018.
- 반길주.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권. 2020.
- 윤지원. “중국 해군의 급부상: 해양패권을 꿈꾸는 잠룡”. 『국방과 기술』. 제459권. 2017.

-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해양안보환경의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4권 제3호. 2018.
- Alessio, Patalano. “When Strategy is ‘hybrid’ and not ‘grey’: Reviewing Chinese military and constabulary coercion at sea”.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6, 2018.
- Bhatia, Kapil. “Coercive Gradualism through Gray Zone Statecraft in the South China Seas: China’s Strategy and Potential U.S. Options”. *Joint Force Quarterly*. Vol. 91, No. 4, 2018.
- Chung, Samman. “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theories and practices”. 『Strategy 21』. Vol. 21, No. 1, 2018.
- Kapusta Philip. “The Gray Zone”. *Special Warfare*. Vol.28. No.4. 2015. p18-25.
- Sugio, Takahashi. “Development of Gray-zone Deterrence: Concept building and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6, 2018. p.787-810.
- Votel, Joseph L. “Statement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Emerging Threats and Capabilities”. *U.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2015. p.1-21.

3. 기타 자료

- Andrew S. Erickson. “Exposed: Pentagon Report Spotlights China’s Maritime Militia”. 『The National Interest』. 2018.8.20.
-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China’s Maritime Militia: What It Is and How to Deal with It”. 『Foreign Affairs』. 2016.6.23.
- Holmes, James, Yoshihara, Toshi. “Five Shades of Chinese Gray-zone Strategy”. 『The National Interest』. 2017.5.2.
- O’Hanlon, Michael. “The Challenge of Confronting China Over a Gray Zone Crisis”. 『The National Interest』. 2019.7.9.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 (최종 검색일: 2020.07.20.)
 - 세계분쟁정보(WoWW)
<https://www.kida.re.kr/frt/contents/frtContents.do?sidx=2262&depth=3&lang=kr>
(최종 검색일: 2020.07.01.)
 - 남중국해 분쟁 데이터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91&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lang=kr> (최종 검색

색일: 2020.07.01.)

- 동중국해 분쟁 데이터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66&idx=9&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lang=kr> (최종 검색
일: 2020.07.01.)

-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https://www.mod.go.jp/> (최종 검색일: 2020.7.18.)

〈Abstract〉

Comparison on Patterns of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through Analysis on Mechanism of Chinese Gray Zone Strategy

Cho, Yongsu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mpirically analyzing the overall mechanism of the “Gray Zone Strategy”, which has begun to be used as one of Chinese major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in maritime conflict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since early 2010, and comparing the resulting conflict patterns in those regions. To this end, I made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about Chinese gray zone strategy. The hypotheses that I have argued in this study are the first, “The marine gray zone strategy used by China shows different structures of implemen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which are major conflict areas.”, the second, “Therefore, the patterns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lso show a difference.” In order to examine this, I will classify Chinese gray zone strategy mechanisms multi-dimensionally in large order, 1) conflict trends and frequency of strategy execution, 2) types and strengths of strategy, 3) actors of strategy execution, and 4) response methods of counterparts. So, I tried to collect data related to this based on quantitative modeling to test these. After that, about 10 years of data pertaining to this topic were processed, and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with a new categorization and operational definition of gray zone strategies. Based on this, I was able to successfully test all the hypotheses by successfully comparing the comprehensive mechanisms of the gray zone strategy used by China and the conflict patterns betwee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In the conclusion, the verified results were rementioned with emphasizing the need to overcome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East Asia that could be caused by China's marine gray zone strategy. This study, which has never been attempted so far,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rified the intrinsic structure in which China's gray zone strategy was implemented using empirical case studi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and maritime conflict patterns was investigated.

Key Words: China, Maritime Security, Gray Zone Strategy,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disputes, Time-series Data Analysis

투고일: 2020년 9월 28일 | 심사일: 2020년 11월 8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6일